

## 사료 배송사업을 통한 회원서비스 증대



▲ 유진 천안산란계지부장

지난 2008년 3월 7일 천안산란계 지부가 천안시 풍세면에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본고는 지난 12월 3일 지부장으로 선출된 유진 지부장을 만나 지부 운영방안을 들어보았다.

### 물류의 중심지 천안

물류, 교통의 중심지 천안! 이 곳에서 산란계업을 하는 농가는 73농가로 약 300만수 규모가 사

육되고 있다. 이중 50농가가 지부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천안산란계지부는 지난 1967년 양계산업의 초창기 시절, 김동찬, 김경렬 씨 등 산란계를 하는 분들이 모여 계우회를 결성하면서 태동되었다. 특히 1988년부터 대전충남양계조합 초대회장을 지낸 김경렬 사장이 계우회를 당시 조합과 연계하여 양계협회 지부(당시 분회)로 활성화 시켰고,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양계협회 활동도 함께 병행하였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부활동이 유명무실화되면서 이렇다할 활동이 없던 중, 지난 2007년 12월 3일 정기총회에서 유진 지부장을 선출하며 회원의 단합과 산란계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유진 지부장은 풍세에서 5만수 규모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데 최근 사료곡물가격 폭등으로 원자재비가 상승하고 소비불안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런 시대에 변화에 대처하고 도전하는 농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 사료 배송사업을 통한 활성화 모색

천안산란계 지부는 회비는 물론 농가의 사료배송사업과 난좌공동구매사업, 노계알선사업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지부를 꾸려나가고 있다. 특히 사료배송 사업은 천안 산란계지부의 자랑거리중의 하나이다. 유진 지부장은 5대의 사료차를 확보하여 농가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사료차를 보내 원하는 양을 농가에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 대가로 운송 수수료로 지부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유진 지부장은 어떤 사료회사라도 상관없지만 대신 철저한 소독하에 농장에 출입하도록 운전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으며, 농가가 원하는 시간에 사료를 배송해 줄 수 있고, 운송수 수료를 지부에 적립시켜 자조금 형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전했다. 천안지역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두차례나 피해를 가져왔던 지역으로 방역에 대한 의식이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는 지역이다. 유진 지부장은 겨울 동안 젊은 2세 양계인들을 주축으로 조를 형성하여 농장을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현재까지 효율적인 방역 활동을 이끌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AI가 유입되더라도 철저한 방역관리로 모든 농장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표명하였다. 시에서도 이러한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소독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 계분 자원화 사업 추진

앞으로 유진 지부장은 조합과 연계, 계분장을 설립하여 계분의 자원화 사업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계분은 여름철 비수기 철에 처리하는데 큰 애로 사항을 안고 있으며,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계분을



▲ 천안산란계 지부가 지난 3월 7일 헌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처리하기 때문에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항으로 지목하였다.

또한, 천안시내에 축산회관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축산인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축산관련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던 터이기 때문에 타축종과 협의를 거쳐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진 지부장은 산란계 업계에서 생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이 없기 때문에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의 어느 시·도지부 보다 뒤지지 않는 제1의 지부를 만들 것이라 다짐을 하였다.

#### ▶ 임원명단

- 지 부 장 : 유진
- 부지부장 : 김진길
- 사무국장 : 임상덕
- 총 무 : 배종옥
- 회 계 : 황영도
- 이 사 : 이연권, 이준배, 최일주
- 감 사 : 유재현, 우한영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

